

“꿀벌산업 시설 현대화만이 살길”

밀원수 확대·전문육종장 설치도 시급

전남발전연 활성화책 제시

전남지역 꿀벌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설현대화 지원과 밀원수 확대, 꿀벌 병충해방제시스템 구축 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단순히 꿀만 따는 것이 아니라 벌을 과일 나무 등의 수분 매개체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상품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발전연구원(원장 이권철) 조창완 선임연구위원은 정책연구 '전남 꿀벌산업 활성화 전략' 보고서를 통해 전남 꿀벌 산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꿀과 꿀 연관제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국내에 퍼진 병해충의 영향으로 지난 2000년 중반 이후 국내 꿀 개체수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남 꿀벌사육농가는 2010년 2990농가로 전국 2만5013농가의 12%를 차지했으나, 지난 10년간 약 157.4%가 감소했다.

이 지역 꿀벌사육농수 또한 2010년 17만2180마리로 전국 169만7847마리의 10.1%를 차지하였으나, 병해충해 전남 꿀벌 산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반면 꿀벌의 경제적 효과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 세계 주요 100대 농작물의 대부분이 꿀벌의 수정에 의존하고 있는 등 봉산물 이외에도 수분의 매개체로서 작물의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전남의 꿀벌산업은 생산시설의 노후화, 밀원수 부족, 꿀 유통체계 미흡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실질적인 방안 구축이 절실하다.

조창완 선임연구위원은 “꿀벌산업은 꿀, 화분, 로열젤리, 밀랍 등 전통적 제품을 포함하여 최근 기능성 성분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어 산업적 가치가 풍부하

다”며 “시설지원 및 제도개선을 통해 전남의 꿀벌 주산지인 나주, 순천, 보성, 목포지역의 지역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양·한봉능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현대화 지원 ▲꿀벌 생산성 제고를 위한 밀원수 식재 확대 ▲질병정정 토종벌 보급을 위한 전문육종장 설치 ▲꿀벌 병해충 방제 시스템 구축 및 전남 꿀벌산업 화연구소 설립 ▲꿀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꿀, 화분, 로열젤리, 밀랍 등 전통적 제품을 포함하여 최근 기능성 성분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어 산업적 가치가 풍부하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국관 엘 시스템아’ 목포서 꿈을 연주하다

초록우산 오케스트라 내달 2일 연주회

‘한국관 엘 시스템아’(El Sistema=베네수엘라 빈민층 아이들을 위한 무상 음악프로그램)로 알려진 초록우산 오케스트라가 창단 2주년을 맞아 목포에서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다음달 2일 전남도교육청 체육관에서 ‘초록우산 오케스트라 제2회 정기연주회’를 연다.

공연은 모두가 참여한 ‘작은 별’과 ‘마법의 성’에 이어 초·중급반의 ‘미녀와 야수’, ‘문 리버’, ‘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를 연주한다. 합주반은 ‘넬라 판타지아’, 쇼스타코비치의 왈츠,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과 ‘타이타닉’ OST 등을 선보인다.

초록우산 오케스트라단은 창단 1년만인 지난해에 서울과 목포에서 잇따라 연주회를 개최해 국내 음악



계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어린이재단 관계자는 “초록우산 오케스트라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단원들이 가족과 친지들에게 그동안 노력한 결과를 보여줘 긍지와 자신감을 부여하고자 한다”면서 “이를 통해 초록우산 오케스트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공연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바지락 캐고 개매기 체험하고

가족단위 체험객들이 지난 28일 강진군 대구면 하저마을 앞 갯벌에서 바지락 등을 잡고 있다. 강진만을 끼고 있는 하저마을은 도시인들이 바지락 캐기와 갯벌낚시, 개매기 체험을 통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어촌체험 마을이다. <강진군 제공>

담양군 한국관광산업 대상

녹색관광 정책 높은 평가

담양군이 한국관광산업학회로부터 최근 ‘2012 한국관광산업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관광산업학회(회장 김상호)는 대학교수와 연구자, 관광사업단체 임직원, 관계공무원 등 다양한 인사 600여 명이 활동하는 전국적인 학회로, 한국관광산업대상은 한국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지방정부와 관광기업에 주는 상이다.

군은 버려진 대나무 숲을 웰빙 숲으로 가꾸며 매년 150만 명이 다녀가는

관광명소가 된 ‘죽녹원’ 조성과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인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과 영산강 사원지인 ‘가마골 생태공원’의 아스콘 포장을 견어내 생태 숲으로 가꾸는 등 ‘녹색관광’ 정책을 펼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가사문화의 보고인 소재원과 식영정·명옥헌 원림 등 명승지와 ‘슬로시티’ 창평 등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생태도시화’ 정책으로 지역의 관광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

/중부취재본부=정재근기자 jgg@

한우고기 싸게 팔아요

농협 전남본부, 할인행사

다음달 1~2일 광주시청

‘제5회 한우의 날’을 맞아 한우고기 할인행사가 광주에서 열린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영조)와 전국한우협회 광주·전남도지회(지회장 민경천)는 11월 1~2일 이틀간 광주시청 야외 문화광장에서 한우고기 할인행사를 갖는다. 또 소의 이웃들에게 쇠고기를 전달하는 나눔행사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1등급 한우 암소 등심을 30% 할인된 4만6000원(kg)에, 한

우 불고기 등 정육을 50% 할인된 1만6000원(kg)에 판매한다. 이밖에도 장흥한우 육포와 ‘녹색한우’의 한우 사골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특히 11월 1일에는 한우 저지방 부위를 이용해 만든 111명분의 한우 요리를 내방객들과 함께 맛 볼 수 있는 나눔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조영조 전남지역본부장은 “어렵고 힘든 환경속에서도 묵묵히 한우 산업을 이끌어가고있는 한우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이런 노력이 지역 소비자분들의 변함없는 한우 사랑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기통기자 song@kwangju.co.kr

전남도,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 강화

잔류농약 검사 철저·농업인 교육

전남도가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를 강화한다. 친환경 농업의 인증 취소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29일 “지난 2004년부터 친환경농업을 역점 추진, 지난해 말 유기농·무농약 인증면적이 전국의 61%를 차지했고, 친환경농축산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인증·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2009년부터 도, 시군에 친환경 부정인증·유통 신고센터 23개소를 설치해 신고포상금제를 실시

하고 명예감시원 140명, 메신저 102명 등을 활용해 친환경 실천농가 및 농산물에 대한 자율감시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 고의로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살포하는 부적합 농가에 대해서는 인증취소와 함께 3년간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이 확대되면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잔류농약 검사도 한층 강화됐다. 인증기관에서 검사한 농산물을 시군에서 수매 및 출하 전에 다시 검사하는 3단계 보

호막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부적격 농산물의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농업인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올해 11만 명을 대상으로 도와 시·군·권역별 친환경농업 교육을 했고, 유기농 명인과정 교육도 15개 과정에 340명을 실시했다.

한편 지난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친환경 농산물 인증 사후 관리를 지도함으로써 4840 농가가 인증취소나 표시사용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새 얼굴

“군민 생명·재산 보호에 신속 대응”

차덕운 강진 소방서장



“새로 설립된 강진소방서가 신속한 대응으로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차덕운(56) 강진소방서장은 “신뢰를 바탕으로 용소방대와 연계해 신속하고 빠른 대응으로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

아버지와 함께하는 독서캠프

순천교육지원청

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박문재)은 최근 순천청소년수련원에서 ‘토론의 달인 만들기’라는 주제로 ‘아버지와 함께하는 행복한 독서토론 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초·중학생 48명과 학부모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6단 논법을 지도함으로써 책을 읽고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모두가 함께하는 독서교육을 함양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독서 캠프는 ▲토론의 달인 ▲대립토론이 뭐예요? ▲6단 논법 배우기 ▲조별 토론 ▲전체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중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카나되는 군민!
카나되는 고흥!

친구님 한마당 잔치

제 38회 고흥군민의날

일 시: 2012. 11. 1(목) 09:00~16:30
※ 전야제: 10. 31(수) 18:30~20:50

장 소: 박지성 공설운동장 일원

고흥군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

[행사안내]

전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MBC 가요베스트 축하쇼 송대년, 김수희, 박일준, 현 숙, 류기진, 이혜리, 성진우, 김용림, 영진, 한서경, 강민, 강민주, 박구윤, 김수연 등 14명 불꽃쇼 	18:30-20:50
식전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흥농악 화합공연(8팀) 발리댄스 공연 	09:00-09:50 09:50-10:00
입장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연별 입장(공설운동장 1문) 성화입장 및 정화 왕우회상 > 군수, 의장 	10:00-10:35 10:35-10:40
기념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회선언(행사추진위원회) 국민의례(MC) 군민헌장 낭독(교육장) 내빈소개(지역 - MC) 군민의상 시상/명예군민 위촉 축하영상메시지 군민의노래 제창 폐식 	10:40-11:10
식후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터 패러글라이딩 축하비행 마칭밴드 퍼포먼스(영광여고) 퓨전전자현악공연 치어리더 댄스 노인건강체조시범 출항가수 공연 민심야, 신아라, 이현주 	11:10-11:20 11:20-11:40 11:40-11:55 11:55-12:10 12:10-12:20 12:20-12:40

명랑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체 줄넘기(유소년 10명) 여자 씨름대회(유소년 3명, 체급별) 400m 계주(유소년 4명) 장애물 릴레이(유소년 6명) 나라가마니 나르기(항우회별 6명) 배구 (예선 및 결승: 10. 31(수) 팔영체육관) 	12:50-13:50 13:00-15:00 13:50-14:50 14:10-15:10 15:10-15:30 09:00-17:00
시상 및 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원상, 입장상 및 명랑경기 시상 경품 추첨 폐회 	15:40-16:00
화합한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대가수 공연 박상철, 서지호 	16:00-16:30
부대행사 (31(수) 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흥 관광사진전 고흥8품 전시·판매 고흥 마걸리 무료 시음·판매 고흥쌀 떡 메치기시식 먹거리장터 어르신 건강캠프(해입, 담노채크 등) 전통 민속 놀이 체험 (연날리기, 투호놀이 등) 무료일일차집 국화작품전시 	09:00-16:30

10. 31 ~ 11. 1(2일간) 농어촌버스 고흥 문화회관 경유
 ※ 서울버스운행: 11. 1(목) 08:00~17:00
 신호주차장-고흥 문화회관